

간협, 정 경 교수 초청 오페라 토크 콘서트

간호사, 오페라를 만나다

고전예술 통해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정 경 오페라 예술경영연구소장이 간호사들을 위한 오페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간호사들이 오페라를 만나 고전의 숨겨진 재미와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예술적 소양을 넓히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간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페라 토크 콘서트'를 12월 7일 개최했다.

정 경 국민대 예술대학 교수가 오페라 예술경영연구소장이 '바리톤 정 경의 정신나간 작곡가와 Kiss하다' 주제로 진행했다. 정 경 교수는 뉴욕 카네기홀 독창회,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공연 등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100회 이상의 초청 공연을 소화하는 국제적인 예술가이다.

오페라 토크 콘서트는 오페라와 드라마를 접목한 형태로 유명 작곡가의 일화를 바탕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클래식 공연이다. 이날 참석한 간호사들은 작곡가, 오페라, 가극 등 예술상식과 작품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 클래식 명곡 공연까지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정 경 교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

등 3명의 작곡가를 소개했다. 이들이 작곡한 명곡들을 직접 노래하는 공연을 펼쳐 흥미를 더했다.

먼저 모차르트에 대해 설명했다. "모차르트는 당대 최고의 천재로 인정받았으며 35세에 사망하고 626개의 작품을 남겼다"면서 "절대왕정 시대의 사회를 풍자하고자 오페라 곡을 썼으며, 모차르트가 가장 기쁘게 작곡한 작품은 '피가로의 결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가로의 결혼 중 피가로의 아리아 '더 이상 날지 못하리'를 직접 들려줬다.

두 번째로 베토벤에 대해서는 "베토벤은 3류 테너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자랐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청각을 잃은 작곡가"라고 설명했다. 청각을 잃은 상황에서 작곡한 교향곡 제9번 '합창'(Symphony No.9)을 '카핑 베토벤' 영화 장면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베토벤의 가극 '그대를 사랑해(Ich liebe dich)'를 직접 불렀다.

마지막으로 슈베르트를 소개하며 "18세에 작곡가로 데뷔해

1200곡의 작품을 남기고 31세에 단명했다"고 설명했다. 슈베르트 가 피터의 시를 읽고 작곡한 데뷔작품 '마왕'을 직접 들려줬다. 정 경 교수는 "상황에 따라 작품 속 인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곡을 통해 막연하게 두려웠던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정 경 교수가 기획하고 작사한 '제주 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를 부르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정 경 교수는 "고전예술에 투자해보라"면서 "고전이라는 방대한 보물섬에는 대단한 가치들이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강연을 통해 간호사들이 고전예술에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간호사들의 삶과 문화가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대한약사회 회장에 김대업 후보 당선

대한약사회 제39대 회장에 김대업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로 실시한 회원 직접선거 결과 김대업 후보가 유효투표수 1만9103표 가운데 58.3%인 1만1132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대업 당선자의 회장 임기는 2019년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시작되며, 3년이다.

김대업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을 따듯한 마음으로 챙기는 약사직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층에 대한 건강 돌봄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직능을 활용한 방문 약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헬스케어산업의 주역으로 약사직능이 재탄생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



최수정 기자 sjchoi@

여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김대업 당선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정보통신위원장, 약학정보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선거에 최초로 온라인투표를 도입했다. 선거에는 총 선거인 3만1785명 가운데 1만9286명(우편투표자 1만96명, 온라인투표자 9190명)이 참가해 6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대업 회장과 경합을 벌인 최광훈 후보는 7971표(41.7%)를 득표했다.

500대 기업 66% 여성임원 한 명도 없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등 민간기업 참여 유도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3.0%로 나타났으며,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는 454명, 여성임원 비율은 3.0%로 전년보다 소폭(48명, 0.03%p) 상승했다.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328개(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국가의 여성임원 비율 평균(21.8%)과 비교하면 유리천장이 아직도 매우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수립·실현하도록 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고위직 여성현황을 해마다 발표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계획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교육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고위직 여성후보군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리천장이 깨지면 고위직 내 성별 다양성이 확보돼 성평등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경영진과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감염병 예방관리 기여 간호사 포상

대통령 표창

정재심 울산대 교수

김성란 고대 구로병원 부팀장

국무총리 표창

백영미 서산의료원 간호사

최은영 동군산병원 간호사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간호사들이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이다. 시상식은 11월 22~23일 열린 2018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 정재심 울산대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내 감염관리 분야의 리더로서 의료종사자의 주시집중상 감시체계를 개발해 운영했다. 의료기관 격리주의지침을 개발해 국내 의료감염의 감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성란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부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내 감염관리지침 및 감염관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감염관리 실무자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 감염병 관리 정책에 참여해 감염관리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 백영미 서산의료원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감염관리교육 및 감시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기여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수립,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을 통해 의료감염관리에 공헌했다.

최은영 동군산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 감염병 모니터링 참여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지역주민,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 2곳 최초 인증

원외탕전실 2곳이 안전한 환경에서 한약을 조제했다는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9월 도입한 이후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평가를 신청한 11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 등 2곳이 인증마크를 부여받았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98곳이 운영 중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혜진 기자 hjoo@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12월 27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세인 김 갑 기 and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6388. Includes contact info for koreanurse.or.kr and nursenews.co.kr.



온라인 법률·노무상담

협회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등록회원은 전년도(2017년) 혹은 당해 연도(2018년) 협회비 납부 회원, 평생회원]

간호현장 및 간호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영역에 한해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상담

이경희 의료전문변호사

간호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적의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요분야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폭력, 성희롱, 기타 보건관련 법적 사항 등

노무 상담

김태철 공인노무사

다년간 회원의 온라인 노무상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 고충에 대한 공감 노무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요분야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휴일, 수당, 해고, 모성보호 등 각종 인사노무관련 사항

온라인 상담방법

- 1 대한간호협회 로그인 2 상단 메뉴 > 회원복지 3 법률 또는 노무 상담 선택 4 등록회원 확인 > 상담하기